

오케이온골프웹진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도비아크로벳리더(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어도비아크로벳리더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설치한 후 웹진을 보시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KPGA

세계랭킹 204위 송영한, 스피스 꺾고 우승 '파란'

싱가포르 오픈 12연더파
프로 데뷔후 첫 우승 감동

세계 랭킹 204위인 송영한(25)이 세계 남자골프 1인자인 조던 스피스(23·미국)를 꺾고 2013년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송영한은 1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 세라폰 코스(파71)에서 재개된 아시아투어 싱가포르 오픈(총상금 100만 달러)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합계 12연더파 272타를 적어냈다.

이번 대회는 일본프로골프투어(JGTO)를 겸하고 있으며, 송영한과 스피스는 전날 경기가 악천후로 지연, 중단되면서 대회 일정을 하루 넘겨 1일 잔여 경기를 치렀다.

송영한은 무섭게 추격하던 스피스를 1타 차로 따돌려 첫승을 신고했다. 송영한은 우승 상금 18만 달러(약 2억1000만 원)를, 스피스는 2위 상금 11만 달러를 각각 받았다.

송영한은 전날 16번 홀(파4) 4m 거리의 부담스러운 파퍼트를, 스피스는 18번 홀(파5)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긴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속개된 경기에서 스피스가 버디로 경기를 먼저

마쳤고, 이어 송영한은 16번 홀에서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1타차 선두를 유지한 송영한은 남은 2개 홀을 무난하게 파로 마무리 타수를 지켜 세계 1위 스피스를 잡는 파란을 일으켰다.

우승후 인터뷰에서 송영한은 "우승 직전에 미끄러진 경향이 있어서 압박이 심했다.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리다 맘이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압박감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2011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 입회한 송영한은 2013년 KPGA 코리안 투어 신인상을 받았고, 2014년부터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 진출했다. 지난해 JGTO에서 두 차례 준우승을 차지했던 송영한은 이번 우승으로 JGTO 첫 승을 기록하게 됐다. 송영한은 지난해 JGTO 상금 순위 14위에 올라 신인왕을 차지했다. 지난 1월 PGA투어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으로 새해를 기분 좋게 출발한 스피스는 이번 싱가포르 오픈에 초청료 120만 달러를 받고 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인도어 TV골프** 한판 붙을까?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정확한 구질
현장감 넘치는 그래픽과 사운드
연습과 실전 리얼링을 동시에!

Indoor TV Golf

당당한 스코어 콜트러 언더시!
실리엄장에서 라운드를 즐기면 내 마음 배싱~

볼 속도	62.4m/s
탄력	10.00%
방향	0.00%
스핀	1.0rpm
클러스터	3050.0rpm
타점	155.3m
타점	155.3m
타점	237.3m



김효주·장하나 우승으로 LPGA '2년차 돌풍'



2016 리우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골프 복귀



1992년생 원승이띠 5인방의 시즌 출사표

김효주·장하나 우승으로 LPGA '2년차 돌풍'

시즌 개막전, 두 번째 대회 우승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 김효주(21·롯데)의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대회인 코츠 골프챔피언십에서 장하나(24·비씨카드)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2년차' 돌풍을 일으켰다.

1~3라운드 내내 선두를 지켰던 장하나는 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골든오칼라 골프장(파72·6,54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0개 홀을 도

는 강행군 끝에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 '천재 소녀' 브룩 헨더슨(18·캐나다)을 2타 차로 따돌렸다. 이번 대회는 둘째날 경기가 악천후로 연기되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3라운드 잔여 경기와 4라운드를 하루에 치렀다. 게다가 대회 최종일에도 비가 계속 내리면서 그린 이 젖어 선수들이 그린 스피드를 맞추는데 애를 먹었으며 대회장소도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골프장이라 경기 중

간에 물을 빼내는 홀도 있었다.

또 다른 2년차인 김효주(21·롯데)는 올 시즌 미국무대 개막전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효주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바하마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오션클럽(파73)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016시즌 개막전 퓨어실크 바하마(총상금 140만달러)에서 마지막 날 7언더파를 추가, 최종합계 18언더파 274타로 2위 그룹을 2타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장하나와 김효주를 비롯해 최종라운드에서 우승 경쟁을 벌인 브룩 헨더슨, 시즌 첫 2개 대회 연속 선두권에서 우승 경쟁을 벌인 김세영(23·미래에셋) 모두 지난해 LPGA 투어에 정식 데뷔한 2년차 선수들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루키 시즌에서 투어 카드 상실이라는 실패를 맛봤지만 Q스쿨을 통해 올해 다시 투어 카드를 받은 평시민(중국)과 지난해 조건부 출전권자에서 올해 풀시드권을 확보한 '골프 신동' 양자령(21)도 주목할 선수이다.

작년 신인왕 경쟁은 어떤 시즌보다 치열했을 정도로 워낙 뛰어난 성과를 낸 신인이 많았다. 웬만한 시즌이라면 신인왕을 거머쥐고도 남았을 선수가 신인왕을 타지 못할 정도였다. 이번 시즌 '2년차 전쟁'은 작년에 뜨거웠던 신인왕 경쟁의 속편인 셈이다.

이번 코츠 골프챔피언십의 최종 리더보드를 봐도 이들의 돌풍을 전망할 수 있다. 우승과 준우승을 2년차인 장하나와 헨더슨이 나눴고, 공동 3위에는 김세영이 이름을 올렸다. 그 뒤로 양자령과 평시민이 공동 6위, 앨리슨 리는 공동 9위로 마감했다.

어느 시즌보다 관전 포인트가 풍성한 올해 LPGA 투어에서 이들 2년차들이 세계랭킹 1~2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박인비(28·KB금융)의 견고한 '2강' 체제를 뒤흔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이다.

사진제공 : klpga



2016 리우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골프 복귀

올림픽의 해 2016년. 오는 8월의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에서는 112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다. 특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는 한국 여자 선수들이 점령하고 있어 메달 획득이 더욱 기대된다.

골프는 1900년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나 다음 회인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을 끝으로 사라졌다.

1900년 대회 출전국은 4개국, 1904년 대회 출전국은 2개에 불과하여 결국 대중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미국)라는 걸출한 세계적 영웅이 탄생하면서 골프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국제골프연맹(IGF)은 타이거 우즈, 여자골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재미교포 미셸 위 등을 앞세워 올림픽 복귀 운동을 전개했다. 마침내 200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6년 리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골프가 채택됐다.

리우 올림픽 골프 종목에 걸린 금메달은 남녀 각 1개씩, 총 2개이다. 경기 방식은 스트로크 플레이로 나흘간

승자를 가린다. 남자부 경기는 현지시간으로 8월 11~14일, 여자부는 8월 17~20일에 열린다.

출전 자격은 세계랭킹을 근거로 남녀 모두 올림픽 랭킹 60위 이내에 들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랭킹은 2년간 성적을 토대로 하여 7월 11일에 최종 출전자가 정해진다. 국가별로 남녀 각각 2명씩 출전할 수 있고, 세계랭킹 15위 이내의 상위 랭커가 많은 국가는 최대 4명까지 출전권이 주어진다. 랭킹은 2년간 성적을 토대로 7월 11일까지 매주 업데이트된다.

올해 1월 올림픽 랭킹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부는 미국이, 여자부는 한국이 4명씩 출전할 수 있다.

랭킹에 이름을 올린 한국 여자부 4명은 박인비(28·KB금융), 유소연(26·하나금융), 김세영(23·미래에셋), 양희영(27·PNS)이다. 세계랭킹 1위인 리디아 고가 출전하는 뉴질랜드가 현재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남자의 경우 안병훈(25·CJ그룹)과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의 출전이 유력하다.

한국 골프의 전설 최경주 박세리, 리우 올림픽 지휘

한국 남녀 골프의 '레전드' 최경주(46·SK텔레콤)와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가 리우올림픽 지휘봉을 잡았다. 대한골프협회는 강화위원회를 열고 남녀 대표팀 감독으로 최경주와 박세리를 정했다.

대한골프협회 강형모 부회장은 "최고의 선수가 출전하는 이번 올림픽이기에 두 선수를 감독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했다. 최경주와 박세리는 평소에도 "한국 골프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돕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이번 협회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사진제공 : kpga

2016년 KPGA 코리안투어의 흥행은 우리가 책임진다

1992년생 원숭이띠 5인방의 시즌 출사표



좌로부터 이형준, 이상희, 박일환, 황중곤, 김학형

*** 이형준(24, JDX멀티스포츠)**

2012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이형준은 2014년 제주도의 강한 비바람을 뚫고 '헤럴드 KYJ 투어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2015년 초반 8개 대회에서 6번이나 컷탈락하며 지난 우승이 반짝 우승이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매치플레이 대회인 '대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에서 정상에 오르며 주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낸 바 있다.

*** 이상희(24)**

이상희는 2011년 마지막 대회인 'NH농협 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루키 시즌에 우승을 일궈냈다. 이 우승은 현재까지도 KPGA 코리안투어 사상 최연소 프로 우승(19세 6개월) 기록으로 남아 있다. 2012년 '제55회 KPGA 선수권대회' 우승과 함께 KPGA 대상에 오른 뒤 일본 투어 큐스쿨에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차지하며 화려한 비상을 꿈꿨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지만 3년째 우승컵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희는 올 시즌 올림픽 출전이라는 원대한 꿈을 세웠다. 그는 "아직 순위가 한참 뒤에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박일환(24, JDX멀티스포츠)**

4년 간의 국가대표를 거치면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바로 프로로 전향한 박일환은 번번히 KPGA 코리안투어 QT(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며 좀처럼 팬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2014년 KPGA 코리안투어 QT를 공동 9위로 통과한 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비록 우승은 없었지만 참가한 14개 대회 모두 컷통과에 성공하는 등 TOP10에 7번 이름을 올리며 그 해 생애 한번뿐인 KPGA 명출상(신인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5년 일본 챌린지투어(2부투어) 개막전인 '노빌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아직까지 국내, 외 1부투어에서는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박일환은 지난 해 10월 기초군사훈

련을 마쳐 마음의 짐을 덜어냈고, 올 시즌 골프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 황중곤(24, 혼마)**

2009년 순한 인상을 가진 17세 소년이 KPGA 프로(준회원) 선발전과 투어프로(정회원) 선발전을 잇달아 통과했다. 투어프로(정회원) 선발전은 수석합격이었다. 당시 최연소 합격이었던 그 소년이 바로 황중곤이다. 하지만 그는 KPGA 코리안투어 QT 예선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10년을 절치부심한 황중곤은 이후 국내보다 일본으로 눈을 돌렸고, 일본투어 큐스쿨을 5위로 통과하며 2011년 일본에서 먼저 투어생활을 시작했다. 일본투어 데뷔 첫 해 '미즈노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뒤 꿈의 무대인 '디오픈'을 경험하기도 한 황중곤은 2012년 '카시오월드오픈'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일본에서와는 달리 국내 우승이 없던 황중곤은 2014년 '매일유업오픈'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며 초대 챔피언에 올라 국내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 김학형(24)**

2015년 KPGA 코리안투어에 첫 발을 내딛고 루키 시즌을 보낸 김학형은 '제58회 KPGA 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로 대회가 열린 스카이72골프 클럽 하늘코스 코스레코드 타이기록을 세우며 단독 선두에 올라 주변을 놀라게 했다. 당시 3라운드에서 박효원(29. 박승철 헤어스튜디오)이 10언더파 62타를 몰아쳐 김학형은 코스레코드를 보유하지는 못했지만 골프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해 드라이브 거리가 258.8야드로 최하위(105위)권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페어웨이안착률은 77.4%로 1위에 올랐고, 그린적중률은 72%로 20위, 평균퍼팅수 1.781타로 26위를 기록했다. 비거리는 짧지만 정확성이 좋고, 아이언 샷과 퍼트가 평균 이상이라는 뜻이다.

김학형은 이에 대해 "무리해서 비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잘하는 부분을 실수 없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좀 더 정교한 아이언 샷과 숏게임, 퍼트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OKongolf Club Championship

네트워크 온라인게임으로 진행되는 OK온골프 스크린골프대회로써 **각매장, 동호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OK온골프 챔피언십이라 칭하며, 각 클럽대회를 통하여 매장, 동호회의 친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도어 TV 백송골프클럽

진정한 골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인천에서 '인도어TV 탐래인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장미영 대표가 일산 덕이동에 2호 매장을 오픈하였다. 장대표는 타 브랜드의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점주와 고객들 모두 만족도가 높은 오케이온골프를 선택했다. 과열양상을 띤 실내스크린골프 보다 경쟁력이 있고 골프실력 향상과 필드 느낌을 그대로 살린 프로그램에 매료되었으며 2호 매장으로 인해 작전동 매장은 VIP손님 중 매장 운영에 관심이 있던 회원이 운영하게 되었다. 2004년에 오픈한 백송 골프클럽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골프연습장으로 각종 편의 시설 및 최고의 서비스로 골퍼들

에게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좀 더 쉽고 마음 편히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넓직한 Driving Range와 전타석 오토티업시스템, 전타석 전천후 냉·난방 시스템, PGA TOUR 프로 및 유능한 코치, 각종 부대시설 등이 백송골프클럽의 자랑이다. 장대표는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라 걱정이 많이 되지만 방마다 놓여진 난로와 히터로 인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담소를 즐기며 플레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며, "맛좋은 커피와 토스트도 만족도가 높아 단골이 많이 생길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내보다 골퍼들의 만족도 높아
'인도어TV 백송골프'의 특징은 장대표의 성공적인 경영 노하우를 살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단골들을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근방에도 인도어TV 매장이 있지만 경쟁상대라 여기지 않고 상보적으로 도와가며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도 전했다. 장대표는 "본사에서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곧바로 해결해 주고 매장들이 잘돼야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게 되니 더 열심히 해보고픈 욕심도 생긴다."며, "실내쪽은 타 브랜드의 점유율이 80프로 이상 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그 브랜드를 기준으로 삼는분들도 있지만 분

명한 차이로 인해 재방문율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을 처음 접해본 김현철(36)씨는 비거리 300야드 이상의 장타자로서 볼의 방향과 구질을 볼 수 있고 게임상에 정확히 표현해 내는 오케이온골프의 차별성에 매료됐으며 "필드에서 처럼 골프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매장문의 : 031-912-187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47-1 백송 골프연습장 2층

장미영대표는 타 브랜드의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만족도가 높은 오케이온골프를 선택했으며, 골프실력 향상과 필드 느낌을 그대로 살린 프로그램에 매료되었다



**상위 1% 골퍼를 위한 싱크로율 99%의 초정밀 시스템!
100% 리얼리티 필드를 구현하는 유일무이한 시스템!**

오케이온골프 스피ن시스템

카메라센서라고 다 똑같은 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센서는 볼의 스피ن량을 추정치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정확한 실측에 의한 스피ن량을 측정하고 그 스피ن량을 실제 움직임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오케이온골프만의 기술력입니다.



초정밀고속 카메라

- 5대 카메라가 마킹볼이 스핀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백스핀과 사이드스핀에 따른 모든 구질을 표현합니다.
- 페이스, 드로우, 슬라이스, 혹은 뽀른 피치 연 락, 라닝어프로치, 로빙 어프로치 등 숏게임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 뛰어난 주파는 데모 일러전 필터는 데모 짜릿한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린에서 볼을 잡으거나 백스핀을 걸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볼의 위치로 미양한 라운드를 재설정하여 타석에 놓출된 센서가 있어서 필드에서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라우터식 검증)
- 퍼싱 연습 시 런시링클, 방향력, 사이드 스피ンを 분석하여 최적의 퍼싱 소프트웨어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Lightning-Halo 엔진

- 실제 사진처럼 느껴지는 첨단 그래픽 효과
- Full HD(1920*1080)를 베이스로 제작하여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 중심선 러브의 질감과 에비러브의 깊은 볼까지 자연스럽게 렌더링 됩니다.
- 설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시공이 가능하여 라운드 스크린도 지원합니다.

자연을 담은 "네이처" 프로그램

- 물리적 모뎀공학/IT공학, 프로그래밍의 전문 지식이 모여있는 첨단 퍼닝 기술
- 지형의 고저 측정, 바람의 저항, 풍의 저항, 지형의 충돌계수, 지형의 탄성계수등 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 새로운 MSBS 엔진 적용! 정확한 임팩트의 짜릿한 손맛을 그린에서 느껴보세요.
- 볼이 스피ن함에 따라 굴러서 움직입니다.

PC Console

Camera

Beam Projector

리블리 캐디와 함께 라운딩 하세요~

- 완벽한 운영지원으로 라운딩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 상황별로 어떤 시골 공략하느냐가 중요치 알려줍니다.
- 특별한 미니 캐디의 간단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골프 실력을 늘려주세요

우주의 선물 오로라의 나라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신비한 섬 ICELAN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연습을 한 곳, 아이슬란드.'

영화 노아의 공동 제작자 스콧 프랭클린의 극찬이다. 당연히 특별하다. 오죽하면 배트맨 비긴즈를 찍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인터스텔라 촬영지로 다시 아이슬란드를 찍었을까. 2015년 화성에서의 삼시세끼라며 국내 관객수를 늘린 영화 마션의 촬영지. 지구의 또 다른 행성으로 불리우는 아이슬란드. 이곳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현대적인 도시부터 황무지, 아름다운 해변, 사막, 빙하, 화산까지 대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 빅3 ...아이슬란드 골든 서클 복잡한 거 싫은 여행자들이라면 이 코스다. '신의 나라' 아이슬란드를 짧고 굵게 즐기는 법. 간단하다. '골든 서클'을 돌면 된다. 골든서클은 게이시르(Geysir), 굴포스(Gulfoss), 퉁벨리르(Thingvellir)로 이어지는 라인이다. 아이슬란드의 자연과 역사가 모두 응축돼 있는 포인트다.

Geysir

80m 물기둥 '게이시르'

빙하의 연속일 것만 같은 아이슬란드. 하지만 이 땅, 극과 극을 품고 있다. 30여 개의 활화산과 함께 780여 곳의 온천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 마치, 길 안내판처럼 헤아릴 수 없는 폭포가 연이어 등장하는 셈이다. 핵심 포인트는 게이시르다. 간헐천의 대명사가 돼버린 게이시르는 그야말로 지구에 없을 듯한 풍경을 지니고 있다. 수십 개 웅덩이에서 연신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끓고 있는 온천. 압권은 시시때때로 허공을 향해 치솟는 물줄기다. 게다가 마치 화산지대처럼 연신 짝 벌어진 땅 사이로 뭉게뭉게 올라오는 수증기라니. 치솟는 물줄기도 장난이 아니다. 땅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이 간헐천 물줄기는 최대 높이 80m에 달한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 밖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 있으면, '어' 하는 순간, 팡 터진다. 수백 개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눈길은 그 순간 일제히 간헐천의 궤적을 쫓아 움직인다.

Gulfoss

빙하가 만든 폭포 '굴포스'

이름에서 벌써 '포스'가 묻어난다. '굴포스'라니. 실제 가보면 그 위력에 압도당한다. 세차게 떨어진 물. 작은 기포가 돼 마치 진눈깨비처럼 흩뿌려진다. 이런 광경, 브라질 이구아수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360여 개의 폭포가 만들어내는 물 입자들이 마치 분무기처럼 이구아수 전체를 뒤덮었던 그 순간.

그리고 보니 더 놀라운 게 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재로 덮인 황량한 대지다.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와 폭포를 이루는 것일까. 가이드의 귀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은 빙하가 녹은 것이란다. 이게 합쳐져 강이 되고, 높이 32m짜리 절벽을 만나 폭포를 이루었다는 거다.

굴포스 옆 바위가 전망 포인트다. 모자를 뒤집어쓴 사람들이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는 연신 뒷걸음질을 친다. 대자연의 위용에 절로 몸이 움츠러든다.

Thingvellir

신비함 가득한 '팅벨리르'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인 퉁벨리르. 여러 영화의 여류 촬영지로 사랑받는 곳이다. 특히 퉁벨리르 국립공원은 '왕좌의 게임'에서 아야 스타크와 '하운드' 샌드르 클레게인이 함께 여행하는 웨스테로스 중부의 마을이다. 상상 속 괴물인 트롤과 요정의 존

재를 믿는 혹은 믿는 척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이슬란드인들. 그들의 믿음처럼 어느 곳에서인가 불속 트롤과 요정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자국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요구될 때마다 이곳에서 회의를 했다. 결혼식을 열기도 하고, 상인들이 모여들어 교역을 하기도 했던 의회이자 광장이었던 곳.

반지의 제왕과 호빗을 쓴 판타지 문학의 아버지 J.R.R. 톨킨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고용한 아이슬란드 출신 보모에게서 트롤 전설을 듣고 판타지 문학의 토대를 키

웠다는데, 아마도 그 배경, 퉁벨리르, 이곳이 아니었을까.

아이슬란드 히든 스팟

골든 서클뿐만 아니다. 아이슬란드의 숨은 명소. 특히 투어월드 마니아들만 가시라. 소문나면 붐비니까.

북쪽의 보석 '블루라군'

아이슬란드하고도 북쪽 끝단. 얼음의 나라에서도 극지인 곳에 무슨 수영장, 하시겠지만 아니다. 도착한 뒤 딱 0.1초면 '아' 탄성이 쏟아지는 곳. 바로 블루라군 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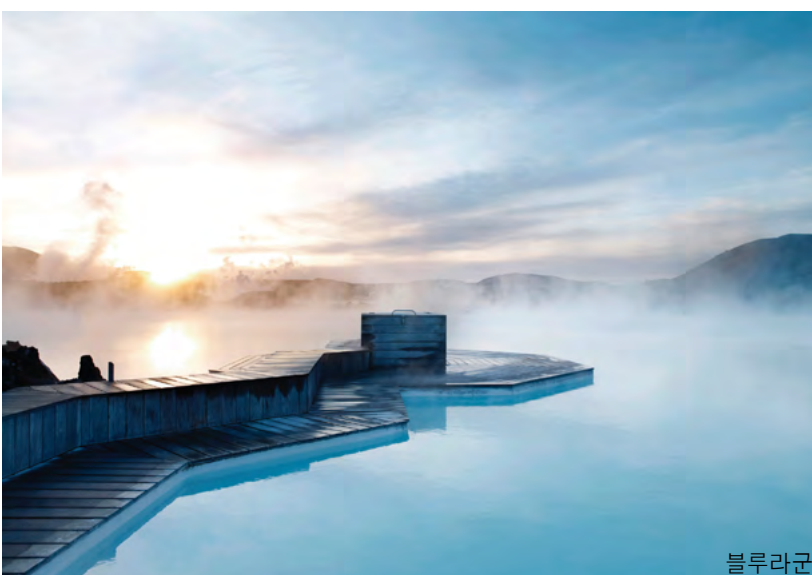
빙하의 연속일 것만 같은 아이슬란드는 극과 극을 품고 있다. 30여 개의 활화산과 함께 780여 곳의 온천 포인트가 있다.



게이시르(Geysir)



골포스(Gulfoss)



블루라군



아스키아

블루라군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순간 마법처럼 온몸의 피로가 사라진다.

다. 블루라군 수영장의 가장 큰 특징은 '온천수'라는 것. 당연히, 후끈후끈하다. 게다가 이 물, 이름처럼 '한없이 투명한 블루'다. 우윳빛보다는 조금 투명한 온천수. 몸을 담그는 순간 마법처럼 온몸의 피로가 사라진다. 압권은 몽환적인 분위기. 몽게 몽게 피어오르는 수증기 속에 살짝 몸을 담그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아이슬란드 최고 휴양지 중 한 곳답게 다양한 칵테일, 맥주를 마시며 한껏 여유를 취할 수 있는 곳이 또 블루라군 리조트 수영장이다. 이곳 역사도 흥미롭다. 원래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지열 발전을 마친 뒤 식은 물을 버리던 웅덩이였던 곳.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좋다'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믿음에 현지인, 관광객 발길이 몰렸고 아예 한 회사가 리조트로 개발하면서 대박이 났다.

소원 들어주는 산 '헬가펠'

블루라군은 꽃청춘도 아는 곳 아니냐고.

맞다. 만만한 곳 하나 하고 시작한 거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시길. 이번에는 소원 들어주는 산 헬가펠이다. 헬가펠은 아이슬란드 역사와 문학책에 자주 등장하는 신성한 산. 높이라 해봐야 73m. 흔하디 흔한 제주의 오름 정도 높이도 안 되는데, 현지민들은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단 조건이 있다. 등반할 때 '간단한 규칙'을 지켜야만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첫째, 말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 이 상태로 남서쪽 경사를 따라 성전 옛터까지 등산하면 된다. 둘째, 소원은 선(善)을 위한 것일 것. 당연히 악의 없는 마음으로 바라야 한다. 셋째 규칙은 동쪽 경사를 따라 내려와야 한다는 것. 잊을 뻔했다. 누구에게도 그 소원을 말해서는 안 된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고 싶으시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니까. 위치는 아이슬란드 중서부다.

아이슬란드 액티비티 '화산 트레킹과 오로라 헌팅'

아이슬란드를 여행지로 찍었다면 이 두 가지만큼은 무조건 해야 한다. 아이슬란드엔 무려 780여 개 화산이 있다. 그중 활화산 헤클라는 874년 이후 세기마다 한 번씩 대 폭발을 일으켜 '지옥의 문'이라 불린다. 최근에 폭발한 게 2000년이다.

트레킹 명소는 크라플라 화산지대. 이곳은 1700년대부터 300년간 형성된 지역이다. 현재도 지하 3km 밑에 마그마가 흐르고 있다. '오로라 헌팅' 역시 꼭 해봐야 할 액티비티다. 물론 시기를 잘 맞춰가야 한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제대로 된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 느낌 좋을 때 갈 것. 밤하늘에 펼쳐진 오로라를 보며 소원을 빌어보자. 특별한 행운을 찾는 여행자들의 '오로라 헌팅' 아이슬란드는 공장과 높은 빌딩이 없고 대도시의 불빛이 드물어 깨끗한 밤하늘을 자랑한다. '오로라 헌팅'으로 불릴 만큼 특별한 행운을 잡기 위해 아이슬란드를 찾는 여행자들이 많다.

추어탕집 CEO로 변신한 개그우먼 김미연

연예인들의 외도는 성공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지만 팬의 입장에서 보면 다방면에서 좋아하는 스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모습도 있었어?' 라는 호기심이 더해져 여러 분야에서 스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이다. 최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개그우먼 김미연도 빼놓을 수 없다.

사진제공 : 김미연 / 장소협조 : 오케이스포츠클럽 02-6915-3568

원조 미녀 개그우먼에서 추어탕집 CEO로

독특한 목소리와 글래머러스 한 몸매로 알려진 개그우먼 김미연. 미녀 개그우먼 전성 시대인 요즘이지만 그녀는 원조 미녀 개그우먼이었다. 가수, 연기자 가리지 않고 도전해 주목을 받던 그녀에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근황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어학연수차 다녀온 것이 화제가 되었다.

“피츠버그에 다녀왔는데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등록해서 간 것이기에 공부 많이 했어요. 원래 동양인이 적고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영어보다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꼈죠. 사람이 무슨일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훌쩍 떠나고픈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새로 시작한다는 건 부담이 없지 않겠지만 그녀가 요즘 구상중인 것은 연예계 활동이 아니다. 팬의 입장이라면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녀가 요즘 관심을 갖고 매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추어탕집이다. 천안에 계신 부모님이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는데 2월 중순부터 철거에 들어가 그녀가 설계 및 총괄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김미연표 추어탕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완성은 6월말에서 7월초에 이뤄지는데 열정적으로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게 요즘 일과이다.

“연예계활동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대뜸 '말바닥부터 할게 아니라면 여기 얼씬도 하지마!'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차츰 서빙도 하고 식자재도 챙기는 등의 일을 겪다보니 보통일이 아니구나 란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스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업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쌓아온 이미지가 브랜드화 되는 것은 특별하게 아니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이

다. 그렇기에 더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하라는 마음에서 그런 충고를 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독수리가 낭떠러지로 새끼를 밀어서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다.

“시장조사를 하며 알게된건데 30~40대 젊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픈하는게 커피전문점이나 치킨 프랜차이즈로 대부분 3년정도 되면 문을 닫아요. 웬만해서는 성공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어머니가 연예인을 떠나서 요식업가가 되고 싶다면 여기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말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말에 아무말도 못했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실줄 몰랐던 거죠.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건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될만큼 쉽지 않기에 더 강한 모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말바닥부터 배워오면서 조금씩 부모님도 마음을 열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따뜻함과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 되고파

이제 방송활동은 안하겠다는건지 물었다.

“SNS에 쪽지로 '언니 요즘 볼 수가 없던데 어떻게 지내요?' 'TV는 언제나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가끔 코미디 활동 했을때의 모니터링을 하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민망하더라고요. 코미디는 트렌드가 있어요. 요즘은 어린친구들도 많고 코너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회귀본능이 있기에 절대 안한다고 단정지을순 없지만 어느순간 이게 아닌가? 싶을 때 바로 방향을 바꾸는게 아니라 모든것이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이기에 되도록 많은 것을 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린나이가 아니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코미디나 예능에서 보여드렸던 따뜻한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작년말 귀국한 그녀는 행복나눔 카페로 불우이웃 돕기를 진행했다. 수익금은 경기도 안성의 돌봄센터에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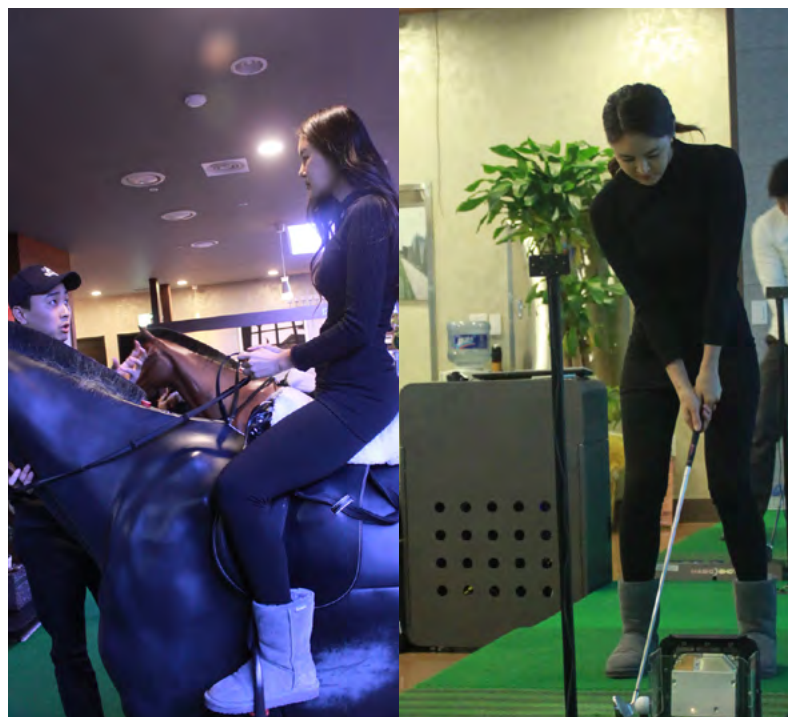
“연말이면 보통 지인들과 술자리가 많은데 지인들과 술먹는 돈만 모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죠. 이번에는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발품을 팔아 실행에 옮겼어요. 카페 사장님께 취지를 말씀드리자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뜻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보람찬 시간을 보냈어요. 일일 카페였는데 그날 매출도 좋았어요. 사실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 혼자 하는것보다 여러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에 시너지가 날 거란 생각을 했어요. 홍보도 따로 안했기에 SNS를 통해 오신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연례화 해볼 생각이예요.”

‘왜 이런일을 하느냐’란 질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 얘기하기 어렵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부모님은 그녀의 멘토로써 매월 작은 정성으로 누군가를 돕고 계시는 걸 안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의 주위에도 따뜻한 사람만 있나보다. 골프를 전혀 칠줄 모름에도 지인의 자선골프대회 초청으로 필드부터 시작한 그녀이다. 평소에도 굉장히 활동적이라 가만히 시간낭비하는걸 좋아하지 않는다.

“레슨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자선대회가 있을때마다 동반 라운딩 요청이 있었죠. 몇 년전에 골프브랜드 런칭쇼에 초대되어 몇 번 휘둘러 본게 다인데, 그걸 보고 잘한다고 어디서 배웠냐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현대무용을 전공해서 운동은 대부분 좋아하는데 제가 빠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필드에서 선배님이 너 잘치지? 한 80개 치지? 라고 물으시는데 전혀 못한다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오케이스포츠클럽은 골프, 승마, PT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종합스포츠 센터이다

테일러메이드, '2016 투어 프리퍼드' 시리즈볼 출시

테일러메이드 코리아(대표이사: 데이비드 친)가 중상급자 골퍼들이 필요로 하는 비거리와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킨 신제품 '2016 투어 프리퍼드 시리즈' 볼을 출시한다.

투어 프리퍼드 시리즈는 약 10년 여 간 소속 선수들과 시제품 테스트를 거쳐 개발하여 2014년 처음 선보인 라인이다. 업그레이드 되어 선보이는 2016 투어 프리퍼드 시리즈는 테일러메이드의 볼 기술력인 소프트 테크(Soft Tech™) 기술과 리액트 코어(REACT™ Core) 기술을 접목시켰다. 소프트 테크 기술은 캐스트 우레탄 소재의 커버를 사용해 커버의 유연함과 내구성을 극대화하며, 리액트 코어 기술은 모든 샷에서 빠른 볼 스피드로 긴 비거리를 제공한다.

4피스 볼인 투어 프리퍼드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스피드 맨틀(Speed Mantle™)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이다. 맨틀의 압축 강도는 80으로, 2014년 버전보다 65% 더 부드럽고 유연해졌다.골퍼들은 더 낮은 압축강도로 인해, 이전의 버전에서 경험했던 퍼포먼스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더 부드러워진 타구감을 느낄 수 있다.

투어 프리퍼드 X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투어 프리퍼드 볼은 부드러운 터치감과 함께 많은 스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골퍼들에게 적합한 볼이다.

5피스의 투어 프리퍼드 X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 테크 캐스트 우레탄 커버로 그린에서의 볼 컨트롤 능력을 최상으로 이끈다.특히, 이전보다 두꺼워진 커버와 322개의 공기역학적 기술을 접목한 딥플 패턴의 결합은 보다 강력한 볼 컨트롤을 가능케 한다. 이로 인해 맞바람 부는 날씨가나 스핀이 적게 걸린 경우에도 볼이 멀고 곧게 날아가도록 해 비거리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로써 투어 프리퍼드 X는 기존보다 향상된 볼 컨트롤 능력과 드라이버는 물론 아이언 샷에서도 강력한 탄도를 바라는 골퍼에게 어울리는 볼이다.



일본 카데로(CADERO)그립 신제품

세계 최초, 충격흡수 그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립 전문 회사인 일본 카데로사에서, 금번 또다시 새롭게 2*2(two by two) 이중 충격흡수그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출시함으로써, 골프업계에 전개될 그립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수입 총판인 한국메트로(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에서 본격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카데로 (CADERO) 2*2(two by two) 이중 충격흡수그립이 수입 석달만에 전국 100여개 대리점에 납품되는 등, 골퍼들 사이에서 그립촉감이 사람의 맨살을 만지는 것 같다는 평가와 함께 그 성장세가 폭풍과도 같다는 설명이다.

CADERO 2*2(two by two) 이중 충격흡수그립의 특징은 100% 천연고무 소재로 속 그립을 만든 후 엘라스토마라는 소재로 겉 그립을 씌워서 사람의 피부와 흡사한 지상최고의 그립감을 실현하여 방향성의 향상과 비거리의 확대, 또한 그립 두께가 겹쳐진 상태의 이중이기 때문에 임팩트시에 샤프트에 전해지는 진동과 충격을 50%이상 감소시킴으로써 골프 엘보 예방과 관절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년간 플레이횟수가 많은 골퍼들은 신체나 관절부분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 골프 엘보가 있는 골퍼나 관절이 굳어져 있는 골퍼,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골퍼에게 뛰어난 효과가 있다.



MFS골프 고객사는 캐디백 보상판매 이벤트

201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

₩보상판매\$ 50%	₩신규판매\$ 30%
캐디백으로 구매 시 소비자 가격에 50% 할인 (기존 중고차 반납, 캐디백, 보스룸, 티시 캐디백 포함)	캐디백으로 구매 시 소비자 가격에 30% 할인 (기존 중고차 반납)

★ 캐디백 구매자 모든분들께 클럽점검 및 라이 로프트각 점검 서비스 ★
(라이 로프트각 조절 시 별도비용발생)

상세일정

1. 행사일정: 2016년 1월 4일 (월) ~ 2016년 2월 29일 (월)
2. 행사대상: 오픈고객(방문고객, 전화주문 고객 등)
3. 시행매장: MFS골프 직영매장
4. 문의전화: MFS 강남역점 02-394-0008
MFS 분당아람점 02-722-1100
MFS 본당미금점 031-713-0003

※ 본 이벤트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합니다. 반납된 모든 제품은 아름다운가게에 진형기부되어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갑니다.

www.mfsgolf.com 아름다운가게 Yellow ID @mfsgolfgolf

MFS골프 캐디백 보상판매 이벤트

대한민국 골프피팅의 선두주자인 MFS골프는 2016년 겨울맞이 '캐디백 보상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캐디백 보상판매 이벤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캐디백을 가지고 오면 MFS골프의 캐디백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이벤트다. 기존에 사용하던 캐디백은 브랜드 상관없이 보상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캐디백 보상판매 이벤트'에 참여한 골퍼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클럽점검 및 라이/로프트각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수거된 캐디백들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를 하여 불우이웃돕기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情)을 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 외에도 MFS골프는 소외계층과의 소통을 위해 지적 장애인 골프대회,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정기적으로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여행이님의 동영상 레슨

Q. 스윙폼에는 이상이 없는것 같은데 슬라이스가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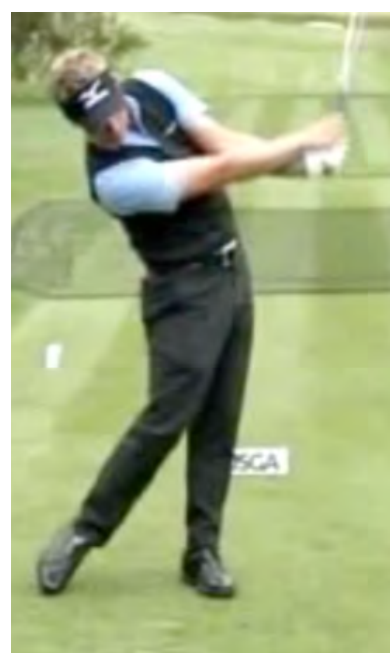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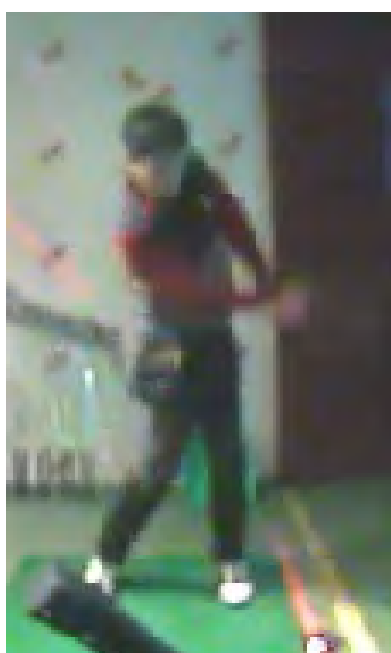
A. 안녕하세요.
배일성 프로입니다.

슬라이스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 바로 슬라이스가 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라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훅을 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훅은 어떻게 내는 것인가 하면, 가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클럽페이스를 최대한 많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최대한 돌려야 되냐면 바로 클럽 헤드가 볼에 맞을 때입니다.
이때 과도하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훅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미친듯이 클럽 페이스를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는가가 중요합니다.
빨리 클럽페이스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파워를 낸다고 몸통을 사용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몸통은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재빨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옆의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른지 잘 나타납니다.
훅이 뭐가 다른지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중요한 차이점은 손이 배꼽을 통과할 때 이미 클럽의 회전속도가 빨라서 샤프트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차이점은 클럽 헤드를 당겨서 치지 않고 밀어서 친다는 것인데요.
밀어서 치게 되면 당겨서 칠 때 보다 10배



〈루크도널드와의 스윙비교〉

슬라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훅을 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훅은 어떻게 내는 것인가 하면, 가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클럽페이스를 최대한 많이 돌리는 것입니다.

는 더 빨리 클럽페이스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밀어서 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패스가 바뀌게 됩니다.
즉 아웃에서 인으로 되던 스윙패스가 인에서 아웃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슬라이스를 잡으려면 훅이 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슬라이스와 훅을 뜻대로 구사할 수 있게 된다면 볼을 스트레이트로 보내는 방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글로는 참 쉬워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안되는게 골프죠.
수고하세요~



배일성프로

성결대학교 골프 겸임 교수 역임
안양 그린파워 헤드프로 역임
Nicklaus/Flick Golf School 수료
잭니클러스 골프센터 리드 인스트럭트

OK은골프 네이처

맞짱 대결

네트워크 게임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상대방과 1:1로 대결하는 방식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을 게임 안에서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게임.

★ 기능

- 원격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상대방과 1:1 대결 진행되고 함께 라운딩 하는 듯한 느낌으로 상대방의 실시간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이모티콘, 상용구) 기능 지원 (안드로이드 모바일은 현재 지원 가능)
- 대전상대 영상 지원(상대가 모두 카메라가 있을경우)
- 맞짱대결 플레이어
 - 가) 맞짱 플레이어 참여(맞짱플레이어는 비슷한 핸디캡을 가진 가상 플레이어로 언제 어디서든 맞짱을 풀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나) 맞짱 플레이어와 대전을 하게 되면 동영상과 이모티콘이 서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다) 맞짱 플레이어의 아이디는 oknxxx입니다.



(맞짱 대결 상대)



(함께 플레이하는 모습)



(이모티콘 설정)



(앱과 연동)

★ 게임 참가 방법

- 1 게임 메뉴 **동시타입** 선택
- 2 1 VS 1 맞짱대결





★ 앱 채팅

- 1 OK은골프 앱 메뉴에서 **골프친구** 선택
- 2 맞짱대결에서 유저 선택하여 채팅





- 게임 티상 후 자동친구 추가되어 친구 등록 가능
- 게임 중반 플레이어 자동친구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앱, 홈페이지' 환경설정에서 '해제' 로 변경

- 3 앱에서 채팅 시 이모티콘, 상용구는 상대 게임화면에 표시함.



★ 룰렛

1. 홈 플레이 시간

구분	Par 3	Par 4	par5 (par6)
시간	2분	2분 30초	3분 30초

- 홈 플레이 시간이 지나면, 30초 3회 추가시간을 줌.
- 30초 3회가 지난 때마다 +1 벌타 발생
- 시간 제한 벌타 4회일 경우 상대 플레이어에 피해 주는 행위로 간주, 게임 강제 종료 처리


★ 승점

= 18홀 완료 시

구분	승리	무승부	패배	게임중도포기
승점	+3	+1	0	-1

- 2연승시 계산: 승점(+3) + 2연승(+2) = +5점
- 4연승시 계산: 승점(+3) + 4연승(+4) = +7점

앱에서 맞짱대결 부킹 안내 바로가기 >



2016년 01월 04일 ~ 2016년 04월 03일

위클리 신스태이블포드 챔피언십

핸디캡이 필요없는 점수제 방식의 새로운 대회입니다.
각 스코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 참여한 라운딩 스코어들의 총합이 높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신스태이블포드 룰

Points	Strokes taken in relation to par
+8 points	알바트로스 (-3)
+5 points	이글(-2)
+2 points	버디 (-1)
0 points	파(이븐)
-1 points	보기 (+1)
-3 points	더블보기이상 (+2 혹은 이상)

출인원시 추가 점수: +5점
18홀 플레이 시 추가점수: +10 점

* 월 왕중왕 전: 매주 우승자 4명중 성적 상위 2명이 맞짱대결로 월 왕중왕전 수상

대회 핸디캡: 주우승자 -20, 준우승자 -10 (*3개월마다 초기화)
참가자격: OK은골프 준회원 이상 (매장주, 매장관련 증서자 제외)
참가비: 없음
로컬룰

1. 게임 영상 미존제시 시상 제외
2. 2개 계정 이상 계정 소유시 시상 제외
3. 수상자의 경우 동영상이 오픈 됩니다.
4. 게임 영상에서 세컨샷을 티 위에서 한 영상 존제시 심격처리 됩니다.
5. 동점시 참가횟수, 스트로크 최저타, 백카운터

주수상

1등	2등	3등	7위	통기	니어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행운상)	2만 포인트	2만 포인트

위클리(Weekly) 프로(핸디캡)팀 도전!

이벤트 기간: 2016년 01월 04일 ~ 2016년 04월 03일

핸디캡 대회로 핸디캡(20게임 이상시) 생성 유저만 참가 가능하며 팀(2~4명)으로 구성진행됩니다.

초기값 셋팅 포인트 **250,000P** 참가자에 따라 포인트 실시간 누적

1. 참가자격: 핸디캡 생성유저 (20게임 이상 진행시)
2. 참가비: 1인 2,000p
3. 대회 구분

팀핸디캡상	핸디캡이 생성된 유저로 팀(2~4인)이 플레이하여 본인핸디캡 스코어의 상위 2명의 성적을 합산
팀메달리스트상	핸디캡 없이 라운딩한 스코어로 팀의 상위 2명의 성적을 합산
4. 대회핸디캡: **유저(하한:∞, 상한:+9)**
 주우승자(+2), 준우승자(+1) (3개월 단위로 초기화)
5. 중복시상 불가: 팀핸디캡상 우선시상이며 니어, 장타시상은 중복허용
6. 유의사항: 팀베스트, 팀메달리스트 수상자(1,2,3등)인 경우 동영상은 오픈됩니다.
플레이어등급은 투어프로로 설정됩니다.

누적포인트에 대한 배분률 (100%)

팀핸디캡상 (70%)			팀메달리스트상 (30%)			니어/장타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35% + 네이처 트로피	21%	14%	15% + 네이처 트로피	9%	6%	골드볼 1set (3개)

LPGA 조은애프로의 LESSON DIARY

트리플샷 연습방법

트리플샷은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미 지난 샷에서 서운할 정도의 미스샷이 있었기에 마주하게 된 상황이니 더욱더 기분이 좋지 않다. 이번 샷을 제대로 성공 시키지 못한다면 점수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긴다. 분명 위기에서 신이 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나만 운이 나빠서, 그 동안의 연습이 모두 다 헛일이 된 것 같고, 오늘 골프가 이미 다 망쳐 버린 듯한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하자.



펀치샷 연습

펀치샷은 말그대로 임팩트에 집중해서 펀치(때리듯) 짧고 간결한 스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평소시보다 몸의 움직임을 조금 더 견고하게하는 것이 좋다.

- ▶백스윙은 반만 하는 기분으로 올려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목의 움직임은 최소화 시키고 상체의 회전으로 백스윙을 해주는 것이 좋다.
- ▶양 무릎이 스윙 시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다.
- ▶왼발이 스윙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땅을 밟고 있는 기분을 느끼도록 한다. 왼발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임팩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클럽을 휘두를 때 릴리스를 최대한 자제하고 팔과 손 클럽이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 ▶오른쪽 발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 ▶피니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임팩트에서 조금 오래 머물러 주는 기분으로 팔로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면 된다.



조은애프로

LPGA CLASS-A MEMBER
 KLPGA MEMBER
 타이틀리스트 소속 교수프로
 멤버스 러닝센터 대표
 한국골프대학 비즈니스와 겸임교수
 pga0224@naver.com
 02-571-0224

벽을 등지고 연습하자

스윙에서는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몸의 높낮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의 중심과 높낮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지간한 경사지에서는 쉽게 임팩트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엉덩이를 벽에 붙여놓고 스윙하는 것이다.

어드레스에서부터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를 지날 때까지 엉덩이는 단 한 순간도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피니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연습장에서 보다는 평상시 집에서 꾸준하게 해보는 것을 권하고, 클럽 없이 맨손으로만 해도 좋다.



추운 날씨, 건강관리는 정관장 스파G에서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 위주로 재방문을 높아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추운 날씨 건강관리가 걱정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정관장 홍삼으로 유명한 KGC인삼공사에서 운영하는 홍삼 스파 '정관장 스파G'이다.

KGC인삼공사는 대치동과 명동에 홍삼 전문 스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인삼공사에서 직접 관리 및 계약재배 한 6년 근 정관장 홍삼을 이용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홍삼으로 건강관리를 하기에 일반 스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추운 날씨에 홍삼 스파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대치점과 명동점 모두 2~3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12월의 경우 거의 두 곳 모두 예약률이 80%를 넘을 정도로 겨울철에 특히 높은 인기를 끈다. 이곳은 특화된 홍삼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독립된 룸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촉진

하는 워터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홍삼 스파룸', 캡슐에서 홍삼농축액을 전신에 퍼 바른 후 보온과 증기로 누적된 독소를 배출하고 홍삼의 영양을 공급하는 '캡슐존'이 있으며 발의 피로감을 쾌적하게 풀어주는 '풋 스파존', 홍삼의 원료를 이용해 트리트먼트를 진행해 두피 건강을 되살려 주는 '헤드 스파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모든 테라피룸은 샤워시설을 갖춘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관리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홍삼 코스메틱을 갖춘 스킨바를 마련, 테라피를 즐기면서 홍삼 코스메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숙련된 테라피스트의 트리트먼트와 친절한 응대, 그리고 정관장 홍삼의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일본, 중국 등 해외 고객에 단순 스파를 넘어서는 한국의 대표적 '홍삼 체험 명소'로 자리 잡았다.

2011년 9월 처음 대치점을 시작으로 오픈한 정관장 스파G는 현재 2호점인 명동점까지 오픈했으며, 초기에는 평소에도 스파를 즐기는 일본관광객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 매체에 한국의 이색 스파로 여러 차례 소개가 되었다. 아직도 스파 이용객의 절반이상이 일본관광객일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내국인 비중도 높아져 '인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싱글 프로그램과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얼굴, 바디, 헤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 받기를 원한다면 싱글 프로그램이 적합하고, 심신을 이완하고 피로회복과 컨디션 관리가 목적이라면 패키지 프로그램이 어울린다. 패키지는 18만7천원에서 27만5천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며, 싱글 프로그램은 11만원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스파G 대치점장 이상민 매니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홍삼을 스파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피로회복과 혈액개선, 항산화 등 다양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스파G는 재방문 고객 등 단골 손님을 위한 혜택도 마련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했다.

스파G의 겨울철 추천 프로그램으로는 SPA G 바디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홍삼 농축액을 이용한 풋스파로 트리트먼트 전 혈액순환과 함께 추위로 굳어있는 전신 근육을 완하시키고 동인비 홍삼초오일을 활용한 바디트리트먼트로 건조해질 수 있는 피부에 보습막을 만든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예약문의는 스파G 홈페이지(www.spag.co.kr)나 전화(대치점 02-557-8030 / 명동점 02-755-8031)로 확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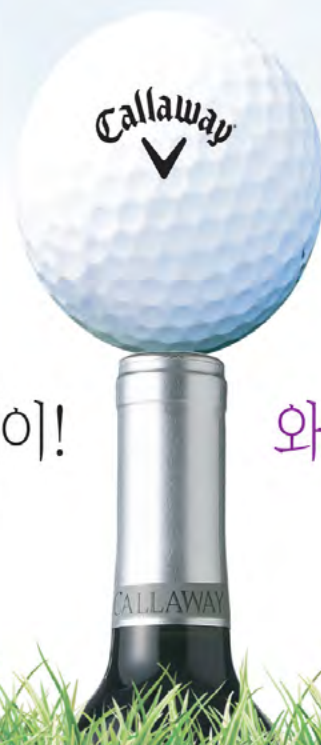
숙련된 테라피스트의 트리트먼트와 친절한 응대, 정관장 홍삼의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단순 스파를 넘어서는 한국의 대표적 '홍삼 체험 명소'로 자리 잡았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임을 일으키며, 운전중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또한, 알콜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ALLAWAY

CELLAR SELECTION



골프의 전설 캘러웨이!

와인의 전설 캘러웨이!

골프의 전설 엘리 캘러웨이씨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와인



EASY WINE CO.,LTD T. 02. 308. 2134

STITCH™ HEADCOVERS



Stitch Golf 헤드커버는 미국 North Carolina에서
100% 고급 소가죽으로 제작된 명품 수제커버입니다.

www.stitchgolf.co.kr

본사 (주)레이크스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99-198 B동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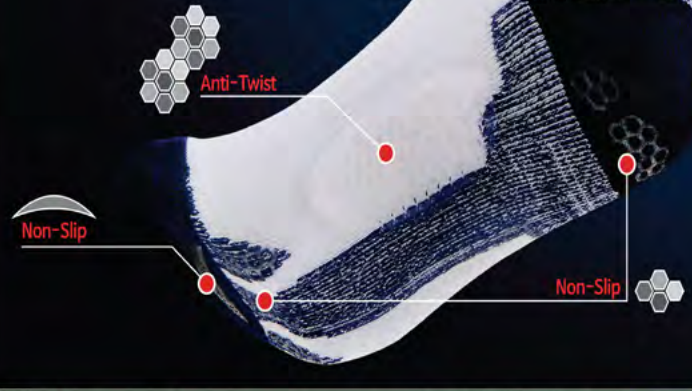
TEL 02-401-7054

Balance Renovation REXY BALANCE GOLF SOCKS

KPGA 공식파트너
한국프로골프협회 공식지정 양말
특허제 10-1102167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공식지정한 발명특허기능성골프양말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렉시 골프 양말은 착용만 해도
비거리 UP, 스코어 DOWN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내일 라운딩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REXY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p>정확한 임팩트 스텝의 각도를 예민한 특수 소재로써 정밀하게 조정하여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합니다.</p>	<p>비거리 증대 화제를 견고하게 안정시켜 편안하게 뛰므로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합니다.</p>	<p>정확한 피팅 화제를 견고히 안정함으로써 상해의 위험이 없습니다.</p>	<p>스웨이 방지 양말의 다리와 무릎의 특수 소재가 화제를 견고히 잡아줌으로써 몸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p>	<p>슬라이스 방지 완벽 양말의 특수 소재로 인해 완벽하게 미끄러움을 방지합니다.</p>	<p>발의 피로감소 족저근막으로 인하여 라운딩 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p>
---	---	---	---	--	--

Balance Renovation (주) 렉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53-5 해인빌딩 2층 판매처: 전국 신세계백화점 골프샵, 전국 골프장 프레스샵
REXY TEL: 02-3432-4394 (대표), FAX: 02-3432-4399 www.rexysport.co.kr



Transitions

눈 보호와 편리함의 만남, 니콘 트랜지션스

실내에서는 안경렌즈로 편하게, 실외에서는 선글라스로 눈보호와 스타일을 한번에



<p>Grey 자연스러운 컬러와 시력</p>	<p>Brown 가장높은 대비감도</p>	<p>NEW Green 스타일리쉬 그린</p>
--------------------------	------------------------	---------------------------

- ✓ 눈 건강 | UV로부터 100% 눈 보호 + 탁월한 눈 피로 감소 기능
- ✓ 편리함 | 하나의 렌즈로 실외와 실내 생활을 동시에!
- ✓ 지속성 | 높은 대비감도의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스타일리쉬 그린!

facebook.com/nikonlenswear
www.nikon-lenswear.co.kr

HISKEI IN-DRIVER HISKEI

폭발적인 비거리!!!



IN
INFINITE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81길 51 지브이빌딩 5층 TEL: 02-489-2931